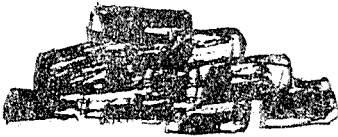


# 요충증이 학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 심 형 수



대부분의 장내기생충들은 장내에서 산란한 충란이 분변에 고루 혼입되어 변과함께 배출되므로 변검사르 충란을 검출하며 변과 함께 외계로 배출된 충란은 적당한 조건에서 일정한 기간 발육하여 감염형으로 성숙되어야만 인체에 감염될 수 있으나 요충은 맹장주위에 기생하면서 십야 수면중에 항문주위에 나와서 자충을 내포한 완숙한 충란을 산란하므로 항문주위에 묻어있는 충란을 스카치테프로 채취 도말하여 검출하는 특수 방법으로 검사하며 항문주위에 배란된 완숙된 충

란은 침구 내의 방바닥등에 오염되어 있다가 음식물에 혼입되든지 먼지 손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감염되므로 중복감염과 집단감염이 잘되는 특성이 있다. 구충 또한 1~2회 구충제 복용만으로는 재감염의 기회가 너무 많아 완전한 구충이 곤란하므로 집안을 청결히하고 온가족이 위생에 유의하면서 일시에 약 1주일간 구충제를 복용하므로써 중복감염을 방지 하여야만 완전히 구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요충은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도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며 위생관념이 희박한 극빈층이나 국민학교 학동에서는 더욱 높은 감염율을 나타낸다고 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소양증으로 인한 수면장애와 신경과민등을 초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요충감염 상태는 과거 많은 학자들의 조사보고에 의

하면 20%~60%의 감염율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널리 만연되고 있다 한다. 요충증이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증상을 초래한다 하므로 요충증이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필자가 근무하는 검사소에서는 경북의 예 기생충학교실과 공동으로 1976. 2. 29~4. 14 까지 사이에 도내 10개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스카치테이프 항문 주위 도말법으로 요충감염 상태를 조사하는 한편 요충감염 학생과 비감염 학생의 학업성적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대항기생충학회에 보고한 바 있었다.

동조사 결과에 요충감염 상태 조사에 있어서는 총 5,431명 검사자 중 2,277명이 요충 양성자로서 41.8%의 양성율로 나타났으며 학교별 양성율은 10개 교중 동명 국민학교가 양성율 53.6%로서 가장 높았고 대구 중앙국민학교는 25.5%로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양성율은 농촌지역이 47.7%로서 가장 높았고 도시는 35.5%로서 가장 낮았으며 중소도시는 43.8%로서 중간치를 나타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41.3% 2학년 41.6% 3학년 42.9%로서 학년별 차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성별 역시 남아에서 41.6%

여아에서 42.3%로서 양자간에 유의적인 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요충감염 학생과 비감염 학생간의 학업성적 비교는 1학기분의 개별 평균성적을 합산하여 그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요충 감염학생 2,161명의 평균치는 69.7이었고 비감염 학생 2,991명의 평균치는 72.5로서 요충감염 학생의 평균치가 비감염 학생의 평균치보다 2.8이 낮았다.

학교별 성별 학년별 지역별 비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요충감염 학생의 평균치가 낮았다. 학교별 비교에서 평균치의 차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앙국민학교로서 감염학생 그룹의 평균치가 4.1이 낮았고 지역별 비교에 있어서는 도시학생의 평균치 3.2 농촌학생의 평균치 2.4씩 각각 감염학생군이 낮았다. 성별 비교에 있어서는 남녀 동일치를 보였다. 학년별 비교에 있어서는 1학년이 2.5, 2학년이 2.4, 3학년이 3.1씩 각각 감염 학생군의 성적 평균치가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감염학생의 성적 평균치는 69.7, 그 표준 편차는  $\pm 18.6$ 이었고 비감염 학생의 성적 평균치는 72.5 그 표준 편차는  $\pm 18.5$ 였다. 유의성 검정결과  $t$ 는 5.1로서 2보다 컸으므로 유의적인 차를 인정할 수 있었다.

요충에 감염되어 있어도 검사물

채취 당시 산란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배변이나 목욕등 기타의 요인으로 충란이 항문 주위에서 떨어져서 씻어져서 없었을 경우등 위음성의 요인이 많으므로 비감염학동군에도 감염학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고려하면 감염학동의 성적 평균치는 본조사 결과보다 낮아질 것이며 비감염 학동의 성적 평균치는 조사결과보다 높아질 것이므로 실제 양자간의 성적 평균치의 차는 본조사 결과보다 그차가 커질것으로 예상

된다. 본조사결과 요충감염학동은 비감염 학동보다 학업성적이 낮았음을 나타내었다. 요충증은 성장기에 있는 국민학교 학동들의 신체 발육과 지능 발달등의 보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온국민은 재인식 하여야 하겠으며 국민학교 학동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뒷받침등 관계당국의 요충구제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다.

〈필자=기혈 경북지부 검사소장〉

### ● 토막상식



## 첫月經 나이가 낮아진다.

빨리는 9세, 늦게는 16세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첫번 월경율(初潮率)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흥미 있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0월23일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도시 여학생의 초경(初經)에 관한 조사연구」(南澤昇, 李元德)에 따르면 연령별 初潮유경율은 12

세 여학생에 있어서 18.2% 13세 여학생 31.9%, 14세 여학생 64.6%, 15세 여학생 89.8%, 16세 여학생 98.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와 대구시에 있는 5개 여자중학생 4천2백7명과 서울시소재 여자대학생 7백3명에 대하여 초조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初潮유경율은 1957년부터 1961년 기간중 출생한 여자중학생 2천5백4명의 초조평균연령은 13.4세였으며 가장 빠른 나이는 9세, 가장 늦은 나이는 16세, 가장 많은 연령은 13세였다.

또한 1950년~1954년 기간중 출생한 여자대학생 7백8명에 있어서의 初潮평균연령은 14.3세이었고 가장 빠른 연령은 9세, 가장 늦은 연령은 18세 가장 많은 연령은 14세였다.